Collection @ chosun

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8284

Collection @ chosun

2009년 8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J.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른 음악 감상 지도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탁 경 현

Collection @ chosun

J. Piajet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른 음악 감상 지도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Teaching Music Appreciation according to J. Piaget's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

Focusing for Grade 1 of Middle School

200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탁 경 현

Collection @ chosun

J. Piajet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른 음악 감상 지도

지도교수 김 혜 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탁 경 현

Collection @ chosun

탁경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서 영 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한 나	(인)

200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목 차

ABSTRACT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차 ·····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Ⅱ. 피아제(J.Piaget)의 인지발달 이론 ····· 3

1. 인지발달 이론의 배경 ····· 3

2.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 6

Ⅲ. 인지발달 이론을 적용한 음악 감상 교육 ····· 12

1. 감상에 대한 정의 ····· 12

2. 음악 감상의 원리와 방법 ····· 13

3.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적용한 중1 음악 감상법 ····· 16

Ⅳ. 연구 내용 ····· 19

1. 베토벤의「합창」교향곡 : 이해중심 교수-학습 지도안 20

2. 생상스의「동물의 사육제」: 체험중심 교수-학습 지도안 28

3. 바레즈의 「이온화」: 창작중심 교수-학습 지도안 ····· 37

Ⅴ. 결론 및 제언 ····· 43

참고문헌

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 1> 음악 감상의 원리 ……14
<표 2> 음악 감상의 방법 ……15
<표 3> 인지발달과 음악 감상 능력 ……17
<표 4> 단원 학습 지도 계획 ……21
<표 5>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 교수-학습 지도안 ……22
<표 6>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 감상지 ……25
<표 7> 단원 학습 지도 계획 ……28
<표 8>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교수-학습 지도안 ……29
<표 9>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감상지 ……33
<표 10> 단원 학습 지도 계획 ……36
<표 11> 바레즈의 「이온화」 교수-학습 지도안 ……37
<표 12> 바레즈의 「이온화」 모둠 활동지 ……40

악 보 목 차

〔악보 1〕 땅위의 기쁨 ……26
〔악보 2〕 이온화 ……41

그 림 목 차

〔그림 1〕 그림 악보 ……35

Collection @ chosun

A B S T R A C T

Teaching Music Appreciation according to J. Piaget's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 Focusing for Grade 1 of Middle School

Kyung-hyun Tak

Advisor : Prof. Hye-keong Kim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oday's music appreciation education is designed to expand possibility of individuals' esthetic experiences as far as can be, enhance quality of individual life, and help individuals represent their ideas and emotion, share and create various ethnic music cultures. However, the current music education does not. Therefore, this study is to enhance appreciation education based on the theory of cognitive psychology.

The cognitive psychology deals with whether we have knowledge on environment and ourselves as we want, and how we use to perform daily tasks given. Human cognition in cognitive development of cognitive psychology is developed through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knowledge. Piaget categorized the theory human thinking develops, that is, developmental stages into four stages.

Therefore, this study speculates music appreciation education targeting grade 1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in formal operation period, and presents various teaching and leaning methods for more effective appreciation education that helps students deal with their adolescence through various activities and experiences.

Collection @ chosun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사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항상 생각하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결정에 따른 행동을 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신념과 목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는 기존의 교육과 현 시점의 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문제를 비교, 인식해야 한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학생들을 그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지도안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도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각 아동의 성장 과정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그들의 지적(知的)능력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짜여진 지도안으로 교사는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 하는데, 아동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주입식의 지도 방식보다는, 개개인의 인지능력을 존중하여 주면서, 발견 학습과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학습을 강조하여, 아동들이 성장수준에 맞게 넓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여,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형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피아제[1]의 인지발달 이론은 경험적이고, 적극적이고, 무엇보다도 연령에 맞는 교

---

1) 피아제(Jean Piaget, 스위스 태생, 1896-1980) 생물학, 철학, 심리학 등 많은 분야에 관심을 보이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자로, 출생에서부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인지기능에 대한 발생학적 변화를 연구하여 정립 시켰다는 점에서는 발달 심리학자이다.

Collection @ chosun

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아동의 인지 발달 이론 단계를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하였는데, 이 단계들은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발달을 이루어야 인지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어느 한 단계라도 건너뛰어서는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설명하여, 모든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피아제의 단계이론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인지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음악교육을 경험하게 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교육의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부분으로 구분 되어 진다.[2] 이 중 감상은 가창, 기악, 창작 등의 음악 학습과 활동에 고루 영향을 주어 음악의 종합적인 기초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상은 음악에 대한 동기 부여의 원천이 되고 감상학습은 보다 넓은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음악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음악 감상은 음악의 미적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즐기는 행위로써, 이는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음악적 요소들, 즉 리듬, 가락, 화성, 음조직,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 모든 음악적 표현 요소에 대한 그 특징과 생성원리의 구체화된 의미를 지각하고 감응하는 것을 뜻한다.[3]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감상교육을 보면 감상곡의 작곡가 소개와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루한 듣기를 계속 행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 감상 교육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 연관지어 다양한 형태의 음악 감상 교육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음악 감상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인지발달이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음악 감상 교육이 되도록 연구하였고, 인지 발달에 따른 감상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감상의 내용을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효과적인지에 대해 모색하여 최종적으로 이론을 학습자의 발달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2) 교과부,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저자, 2008), p.45 참조

3) 기청, 『음악교육의 실제와 이론』, (서울: 세광문화, 2006), p.12 참조

Collection @ chosun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감상 교육에 있어서 인지심리학의 하위 연구 영역인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따른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교수방법으로 효과적인 감상 지도가 되기 위하여 전략과 수업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검토하여 피아제가 구분한 감각운동기(0-2세), 전 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15세)의 네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음악교과서 감상 영역을 살펴보았다.

감상 연구할 제재곡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3곡의 감상곡으로 9종 교과서의 감상 영역을 분석하여 시대별 특징이 잘 나타나는 작품을 선정하여 이해중심, 체험중심, 창작중심 교수 학습 지도안으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 곡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두 번째 곡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세 번째 곡은 '바레즈의 <이온화>' 로 선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Ⅱ. 피아제(J.Piaget)의 인지발달 이론

1. 인지발달이론의 배경

인간은 정보를 다룰 때 그 정보의 대상을 직접 머리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재 표현하거나 추상화시켜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킨다. 피아제는 인간의 지적구조와 지식의 성장과 발달을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술, 설명하고 인지발달 이론을 체계화하여 인간의 지능발달을 몇 단계로 나누어 과학적인 논리를 세운 사람이다.

그는 생물학자이면서 심리학자였다. 그의 심리학은 인간이 자극에 의해 행동하는 일차적인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달리, 사고의 내적 정신과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출생부터 청소년기에 걸쳐 나타나는 인지기능에 대한 발생과 변화를 연구하였다.

피아제는 1921년 파리에서 지능문제에 대해 연구하던 중 아동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추리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아동들의 답안 중 오답문항이 연령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나고, 대답 유형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피아제는 아동들의 사고의 질, 즉 인지 능력이 연령별로 서로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아동들의 인지 발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심리구조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피아제는 이러한 과정을 동화와 조절로 언급하였다. 이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수행해 내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심리학으로 볼 수 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주 특성으로 보았고, 이 마음을 인지라고 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구조를 가졌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고대 희랍시대부터 시작되어, 유럽의 철학자에까지 이어졌으나 그들은 심리적 현상을 주관적으로 분류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자신의 마음을 다른 자연현상처럼 객관화, 대상화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기로 들어오면서 수학적 공식이나 물리학, 생리학 등에서 심리학

Collection @ chosun

을 적용시켜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분트[4]는 1879년 독일 라이프치이에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세우고 인간의 의식의 작용과 구조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인지심리학을 발전시켰다. 그 후 분트와 그의 제자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이룬 구조주의(structuralism)심리학은 복잡한 의식내용을 그 바탕이 되는 감각 경험 요소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앎의 과정이 심리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객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충분한 설명으로 그쳤다.

이에 반발하여 나타난 또 다른 이론은 왓슨[5]의 행동주의(behaviorism)심리학이다. 왓슨은 심리학은 과학적 방법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찰되는 현상만 객관적인 실험방법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심리학의 기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분트가 사용한 의지, 관념, 감각, 사고, 심상 등의 심적 개념을 심리학에서 없애려고 하였으며, 인지과정을 피하고 관찰 가능한 과정만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의도한 바에서 멀어져서 연구는 그치고 말았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에서는 인지주의적 개념과 경험적 연구가 비교적 뚜렷한 형태로 부상하였다. 이후에 디지털 컴퓨터가 발달하고, 컴퓨터와 기계, 계산에 대한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처리가 수월해 졌다. 이런 추세에 따라 촘스키[6]는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는 자극된 내용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조작하여 출력하는 과정 즉, 정보처리 체계가 같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인간의 마음도 컴퓨터와 같이 상징조작 체계로서 개념화 할 수 있음을 밝혔다.[7]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과 여러 연구결과들은 서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

4) 분트(Wilhelm Wunt, 독일 태생, 1832-1921) 독일의 심리학자, 철학자로서 하이델베르크・베를린의 각 대학에서 철학과 생리학을 배웠고, 실험 심리학을 확립하였다.

5) 왓슨(John B. Watson, 미국 태생, 1878-1958) 미국의 심리학자로 종래의 의식 심리학을 반대하고 행동주의 심리학을 제창하였다.

6) 촘스키(Avram Noam Chomsky, 미국 태생, 1928-) 미국의 언어학자로서 현대 언어학의 발달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있다가, 1956년 MIT에서 인지주의 또는 정보처리가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구체화되면서, 인지심리학이 새로운 핵심 학문이 되었다. 후에 1967년, 나이서[8]가 '인지심리학'이라는 책을 출간함으로서 인지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주요 분야로 성장하였다.

이에 피아제는 지적 발달의 조작적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인지과정, 인지구조, 생득적 지식 등의 측면들을 부각시켰으며 사고와 지능에 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의 발전을 자극시켰다.[9]

2.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장과정중의 어린이(0-15세)의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 연구함으로서 아동 발달이론과 교육의 실천적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발달은 동화와 조절에 의한 도식의 변화를 뜻한다고 하였다.[10]

피아제는 신체가 구조를 갖듯이 정신도 구조를 갖는다고 하였다. 정신이 갖는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가 바로 '도식(스키마,schema)'이다. 도식은 아동의 인지발달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새로운 자극을 저장하고 그 자극들을 대조, 확인하여 변별 일반화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이다. 즉, 사고를 형상하

---

7) 조현주, "피아제(J.Piajet)의 인지발달론에 따른 가창지도 방안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2004), p.5 참조

8) 나이서(Ulric Neisser, 독일 태생, 1928-) 미국의 심리학자로 과학아카데미 협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커넬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9) 이정모 외, 『인지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9), P.29 참조

10)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9), P.70 참조

Collection @ chosun

기 위한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식은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환경 간에 차이가 생길 때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식의 변화는 인지 발달의 현상이며, 동화와 조절에 의해 일어난다. 빨기 반사를 갖고 태어난 유아는 빤다는 것에 대한 도식을 지니게 되고 이것이 기억 속에 남아 반복을 통해 분화되고 때론 더 복합적인 도식으로 발달하기도 한다.

동화(assimilation)란 새로운 지각적, 운동적, 그리고 개념적 사건들을 기존의 지식과 행동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유아가 음식이든 아니든 무엇이나 입으로 가져가는 것은 동화의 한 예이다. 또 어린 아동이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를 보고 바이올린 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미 존재하는 도식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화가 일어나면 기존의 도식은 양적으로는 발전하지만, 질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동화에 의한 도식의 변화이다. 동화는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조절(accommodatio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절을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기존지식에 동화시키려고 할 때, 때때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때 기존 도식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는 행동을 조절이라고 한다. 이것이 조절에 의한 도식의 변화이다. 조절이 일어나면 새로운 자극은 더 쉽게 동화된다. 예를 들어, 첼로를 바이올린으로 생각한 어린 아동이 첼로와 바이올린의 소리를 듣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기존 지식에 인지적 불균형을 일으킨다. 이런 불균형은 결국 바이올린에 대한 기존 도식을 확대, 조절하여 다른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면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등의 악기들을 구분하게 된다. 따라서 조절은 질적으로 도식을 발달시킨다.

이와 같이 동화와 조절은 인지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동화와 조절의 상대적 양은 똑같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만일 사람이 항상 자극을 동화만 시키고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크고 적은 수의 도식만 가지고 있게 될 것이며 대상들의 차이점을 발견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또 조절만 하고 동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반성이 없는 아주 작은 도식들만 많이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화와 조절은 어느 것 하나가 넘쳐서도 부족해서도

Collection @ chosun

안 된다. 반드시 동화와 조절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균형을 피아제는 평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평형(equilibrium)은 조절과 동화의 균형상태이다.[11]

동화와 조절 그리고 평형화에 의해서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발달되어진 인지들이 서로 연관되어지기 위해서 피아제는 발달의 네 가지의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성숙, 둘째로 활동적 경험, 셋째로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형의 일반적 진행인데, 이 네 가지 요인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인지발달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가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어야만 인지발달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피아제에 따르면 유전은 시간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발달의 분명한 한계를 설정한다[12]고 하여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만, 인지가 한계를 벗어나 변화된다고 하였다. 활동적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아동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고, 평형은 성숙과 경험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지식들을 도식 속에 통합시키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식, 조절, 평형화로 인해 이루어진 인지발달은 성숙, 활동적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평형화를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어진다.

피아제는 인지 활동을 지각한 환경에 대한 지적 조직의 활동이며, 환경에 대한 적응의 활동으로 본다. 즉, 인지는 경험내용을 해석하고 추론하고 추상하며, 그것으로부터 논리적인 법칙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모든 아동들은 이후의 단계로 발달하기 전에 앞의 단계를 통과해야 하며, 어느 단계에서도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비약적 발전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13] 이것이 바로 발달의 연속성이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모두 4개의 단계로 나누었는데, 감각운동기, 전 조작

---

11) Wordsworth, B. J. 『피아제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성옥련・김수정・이지연 공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p.37 참조

12) 위의 책, p.55 참조

13) 강태훈 외,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이당 1998), p.67 참조

Collection @ chosun

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이 네 단계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피아제가 제시한 네 단계를 구분하여보면 아래와 같다.

(1) 감각 운동기(感覺 運動期, Sensorimotor Stage)

출생에서 약 2세까지의 단계를 감각 운동기라 한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기본적으로 감각을 통해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한다. 따라서 영아들에게는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다.

영아들은 출생 직후에 반사적으로 엄마의 젖을 빠는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단순 반복 행동, 복수 도식의 협응 등을 거쳐 18개월경에 이르면 자신이 접하는 상황에 대해 사고하기 시작한다. 즉, 영아가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보적인 지적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아가 주위의 직접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피아제는 이러한 행동적 수준의 지능을 감각적 지능이라 부르며, 이것이 후에 발달하는 개념적 지능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감각 운동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인지발달은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들 수 있다. 대상 영속성이란 모든 사물은 자신과는 별개의 실체로써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경우에도 공간 내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능력으로 7-8개월경에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한다.[14]

(2) 전조작기(前操作期, Preoperational Stage)

약 2세부터 7세까지의 인지발달 단계를 전조작기라 한다. 이시기의 아동들은 아직 개념적인 조작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는 않지만,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언어사용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가상적 놀이 및 상징화 활동이 증가한다. 그러나 아직 판단의 직관성이나

---

14) 강태훈 외, 앞의 책, p.65 참조

Collection @ chosun

보존 능력 및 가역능력 등이 부족하고, 모든 사고가 자아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물활론적[15] 사고에 의해 지배받는다. 아동의 자기중심성은 언어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아동들이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데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 혼자 있을 때 또는 그가 집단 속에 있을 때 아무런 실제적 상호작용이나 대화가 없이도 열심히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아제는 이것을 '집단적 독백(collective monologue)'이라고 부른다.[16]

내면적 사고로의 이행과 지각적 예민성의 증가는 이시기의 아동들에게 있어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즉, 언어 발달과 상징적 활동의 증가가 이시기 아동들의 사고를 내면적 사고로 이행하게 하고, 행동이나 대상을 표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은 경험 대상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지 못하는 데 반해, 나이가 들어 갈수록 지각적 예민성이 증가하여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지각하고, 복잡한 대상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구체적 조작기(具體的 操作期, Concrete Operational Stage)

약 7세부터 11세까지의 단계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한다. 이 단계의 아동들은 지적 및 정의적 측면에서 현저한 성숙을 보인다. 피아제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는 전조작적 사고와 완전한 논리적 사고 사이의 과도기이며, 아동들은 이 기간에 처음으로 논리적 사고 사이의 과도기이며, 아동들은 이 기간에 처음으로 논리적 조작을 활용할 줄 알게 된다. 비록 기호나 형식에 의한 논리적 조작은 불가능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동들의 사고가 지각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추리 과정이 논리적이 되고, 보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즉, 구체물에 대한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시기 동안에 양, 수, 길이, 무게, 부피, 너비 등에 대한 보존개념이 과제의 특성에 따라 차례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17] 가역성에 대한 이해는 이 단계

---

15)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16) 안범희 외,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8), p.13 참조

Collection @ chosun

의 아동이 양방적인 사고를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역성이 획득함에 따라 역사를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식의 서역조작 등이 가능해지며 자기중심적 사고와 언어는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면서 탈 중심화가 가능해지고 서열화와 유목화도 가능해지며 공간, 속도 등의 개념도 형성된다.[18]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전조작기의 사고보다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4) 형식적 조작기(形式的 操作期, Formal Operational Stage)

약 11세부터 15세까지의 인지발달 단계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한다. 피아제에 의하면, 이 시기에 학생들의 인지적 구조는 거의 완전한 성숙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사고의 논리적 조작이 자유로워져서 거의 모든 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논리적 조작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고, 가설적 언어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과학적 추리와 가설 설정, 검증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현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상 할 수도 있다.[19] 그들은 더 이상 실제에 의존함으로써 방해받는 일 없이 추상적인 것을 다룰 수 있으며, 가역적 사고가 더 융통성 있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전형적으로 어른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17) 강태훈 외, 앞의 책, p.67 참조

18)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9), p.130 참조

19) 신명희 외,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8), p.56 참조

Collection @ chosun

Ⅲ. 인지발달 이론을 적용한 음악 감상법

1. 감상에 대한 정의

음악 감상을 한 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배양된 능력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음악 감상이란 예술로서의 음악 작품을 음미하고 그 미적 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체험을 감상이라 할 수 있겠다.[20]

감상은 연주되는 음악을 듣고 느끼는 것이다. 즉 음악 감상은 작곡가와 연주자의 창조적 행위가 듣는 사람에게 교유되는 감화작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 감상은 연주자의 예술적 표현력을 통해서 그 악곡의 음악미를 느끼고, 감동하며, 즐기며 가치 평가를 가하는 등 작곡가의 창조 정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예술 작품이 지닌 참되 의미를 되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21]

학교에서의 음악 감상 지도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음악 감상과는 그 뜻을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음악 감상이 주관적이고 통합적이며 자유스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의 음악 감상 지도는 객관적인 조건이 필요하고 다소 계통적이다. 즉 정신적, 신체적 연령의 차이에 따라 기초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쉬운 것에서부터 차츰 어려운 것으로 체계적으로 행해져서 학생들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다.[22]

음악을 '듣는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는 청취, 경청, 평가, 감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학습의 내용과 형태를 꾸며 나가는 것을 감

---

20) 세광음악출판사 편집부,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2), pp.64-65 참조

21) 백병동, 개정 대학음악이론,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5), p.13 참조

22) 이성삼・이홍렬, 『음악감상론』, (서울: 정음사, 1985), p.20 참조

Collection @ chosun

상교육[23]이라고 한다.

결국 감상을 통하여 학생들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음악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주된 목표이며 또한 중심적인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음악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음악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상 영역에 많은 시간을 배분할 수 없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주고,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감상은 음악교육에 있어 중요시 다루어져야 되는 활동영역이라고 생각한다.

2. 음악 감상의 원리와 방법

위에서 감상의 의미를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이 의미 있고 아름답게 들리려면, 음악 작품 자체가 질 높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음악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24] 즉, 물리적인 소리를 생리적으로 듣는 Hearing의 단계에서 음악을 듣는 Listening으로 발전하여 음악을 이해하는 Appreciation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음악에 대한 심미적 감수성을 성장시키는 음악 감상의 본질적 목표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음악 감상은 음악 현상을 감지하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개념과 원리를 추론적 사고에 의해 이해하는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그 진가를 아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폭 넓고 다변적이며 종합적인 과정이며 다음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25]

---

23) 정세모, 『음악과 학습지도』,(서울: 창지사, 1987), p.297 참조

24) 박유리 "시청각매체를 활용한 중학교 감상영역의 수업방법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2003), p.48 참조

25) 이홍수, 『음악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음악여행』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4, pp.33-38

Collection @ chosun

<표 1> 음악 감상의 원리[26]

종류	이해	적용의 예
분석적 감상	구성적 요소(흐름결, 가락, 화음, 형식, 구조, 조직) 및 표현적 요소(빠르기, 셈여림, 음색, 음질), 악곡의 부분적 윤곽	구성적 요소별 감지, 표현적 요소별 감지, 주선율・반주부・대선율 및 조바꿈 감지하기
종합적 감상	구성 요소들간의 관련성, 전체적 윤곽, 악곡의 표현성, 악곡의 의미	음향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음악적인 상(像) 형성하기
음악의 종류	악곡의 형식・양식・연주형태	형식・양식・연주형태 등과 관련지어 듣기
음악의 배경	악곡과 인간적 배경, 음악 시대적 배경, 지역적 및 사회적 배경 등의 관계	작곡가, 연주자, 음악 시대, 지역 및 사회적 배경 등과 관련지어 듣기
악곡의 미학적 성격	관련주의적 관점, 형식주의적 관점, 표현주의적 관점, 절대 표현주의적 관점	악곡의 성격에 따라 알맞은 관점에서 감상하기

위에서 살핀 음악 감상의 원리를 적용하는 음악 감상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27]

첫째, 음향에 주의를 집중한다. 만약, 미술 작품 전시회에 간 사람이 색안경(sunglass)을 쓰고 있거나 눈가리개를 쓰고 있다면, 그는 미술 작품들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곡가와 연주자가 전심전력으로 산출해 내는 음향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세밀하게 느끼고 통찰하고 공감할 수 있으려면, 음악을 듣는 사람 역시 마음을 열고 그것에 전심전력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26) 이홍수, 앞의 책, pp.138-139 참조

27) 앞의 책, pp.26-28 참조

Collection @ chosun

둘째, 인내심을 갖고 음악을 듣는다. 음악의 이해는 감상자 자신이 깊고 신비스럽고 복잡한 예술 세계를 접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음악이 쉽고 단순하고 뚜렷하다면, 사람들이 깊은 예술적 표현성 속에 몰입 될 까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감상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술작품은 사람들이 쉽사리 찾아낼 수 없는 심미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만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음악을 들으면, 누구나 그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작품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음악 심미적 요소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음악을 감상할 때에는 감성적 정황이나 지성적인 자극들 중의 한 측면에만 몰두하지 말고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들어야 한다. 음악 감상은 표면적으로 감각적인 활동이며, 동시에 느낌의 활동이고, 감성적 및 정서적인 활동이며, 지적인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감상자는 지적인 작업으로만 음악을 산출하지 않으며 환경과 경험 속에서 만나는 여러 측면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통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 <표 2>와 같이 적용시켜 볼 수 있다.

<표 2> 음악 감상의 방법[28]

내용	적용의 예
감지 및 감상	구성요소를 분석적으로 감지 판별하기, 악곡의 부분적 윤곽(주선율, 반주부, 대선율, 조바꿈 등)파악하기, 구성과 표현성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악곡의 전체적 윤곽 파악하기. 예측하며 듣기, 상상하며 듣기
신체반응	음악요소에 반응하기,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반응하기
악보 보며 듣기	악보(score)보며 듣기
악곡의 미학적 성격에 따른 감상	관련대상을 생각하며 듣기, 악곡 형식을 분석하며 듣기, 표현 의미에 중점을 두고 듣기, 종합적으로 듣기

28) 앞의 책, p.141 참조

Collection @ chosun

3.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적용한 중1 음악 감상법

인지 발달 상태와 그들의 신체적 발달 상태가 매우 예민한 시기이다. 인간 성숙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인 사춘기라는 특별한 시기에는 사고력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감정이 더욱 세분화되고 예민해지며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인다. 특히 남성에게는 활동적이고 흥분적인 경향이 매우 짙게 나타나며 여성에게는 감성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학생들을 이해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동요되기 쉽고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친구들의 영향을 쉽사리 강하게 받기 때문에 학교의 음악 학습을 통해 음악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여 오락적인 음악에 빠질 기회가 많아 질 수 있다.

둘째, 감상 방법적 측면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정된 감상곡의 특성과 관련지어 지도하여야 한다. 다양한 악곡에 따라 적절한 감상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감상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그러한 방법을 연습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듣는 감각의 예민성을 향상시키는 지도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소리들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을 감지하도록 이끌고, 그 속에 응축된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통찰하도록 한다. 교사 자신이 만족 할 때까지 음향 재현행위를 하도록 악곡을 익혀주는 지루한 수업에서는 음악의 향유도 듣는 감각의 발달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감각적 경험을 주로 하던 감상 학습 형태로부터 지적 논리적 사고도 중히 여기는 형태로 점차 바꾸어야 한다.[29] 학생들은 조성의 구조를 감각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음악 이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따라서 특수한 조성으로 이루어진 악곡을 감상할 때 학생들에게 악곡의 조성에 주목하게 하고, 그 조성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와

---

29)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4), p.234 참조

Collection @ chosun

더불어 악보 사이에 나타난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

다섯째, 음악 감상을 통해서 이런 음악 활동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를 판단하게 할 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들은 자아의식이 싹트고, 자기 나름의 뚜렷한 태도를 형성하며, 그러한 자의식과 태도가 음악 감상과 음악 활동에 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다음 <표 3>는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발달과 음악 감상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인지발달과 음악 감상 능력

나이	인지발달	음악 감상 능력
11세 ~ 15세	·사고의 논리적 조작이 가능하다. ·과학적 추리와 가설의 설정 및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미래를 가상할 수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생각한다. ·모든 류의 문제를 논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추상적인 것을 다룰 수 있다.	·악곡의 내용과 표현성을 종합적으로 감상한다. ·악곡을 작곡자 및 작곡 배경과 관련지어 감상한다. ·감상곡의 주요성부의 악보를 읽으며 감상한다. ·악곡의 구조적 윤곽을 파악하며 감상한다. ·악곡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감상한다. ·작품과 연주의 질을 비평하며 감상한다. ·시대별 작품을 들으면서 구조적인 특징과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상한다. ·악곡의 빠르기와 느리기를 감지한다. ·어떤 악기 소리인지 알아낸다.

dCollection @ chosun

Ⅳ. 연구 내용

우선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기 전에 기존의 교수-학습 지도안과는 달리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른 지도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기존의 교수-학습 지도안과 다르다.

첫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한다. 음악 감상을 한 후 각자의 느낌에 대해 토의를 할 때 어떤 학생은 '음악이 이상하고 지루하다' 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여 '음악의 어떤 측면이 지루하거나 이상하게 들렸는지'를 말하게 하여 음악 감상의 다각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도록 하였다.

둘째, 구체적인 학습 자료와 새로운 경험을 도입한다. 감상곡에 사용되는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보여주고 음색을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곡에 사용되는 악기보다 음악을 재미있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쉐이크나 핸드벨, 썬더드럼 등을 이용하여 악곡을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감상곡에 해당하는 시각적인 매체를 활용하는데 지루한 영상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감상을 하며, colorful한 감상지를 사용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능동적인 활동에 의해 지적 평형상태를 찾으려는 자율적 활동을 강조한다. 여기서 자율적 활동이란 발달 단계에 따른 인지구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확장하는 창의적 활동을 의미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악을 표현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음악을 함께 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능동적인 활동에 의해 지적 평형상태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학생수준에 맞고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수활동을 다양화 하였다.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는 음악에 대한 흥미 유발을 의미하는데 교사가 피아노를 직접 연주해 줌으로써 그들의 내재적 감정에는 스스로 피아니스트가 되어 연주하는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1. 베토벤의「합창」교향곡 : 이해중심 교수-학습 지도안

본 시 학습은 이해중심의 포괄적 음악학습으로 지도안으로 '땅위의 기쁨' 제재곡을 이미 1차시에 수업을 하고 2차시 감상으로 지도하도록 짜보았다.
이 곡은 예술 최고의 표현으로 아직까지 이 교향곡에 비교 될 만한 교향곡은 없다고 하는 베토벤 최고의 걸작이다. 본 제재곡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속의 한 부분으로, 찬송가에도 쓰이고 있고, CF나 드라마, 영화 등에도 자주 사용되는 음악으로 학생들이 본 곡을 많이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는 곡일 수록 학생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신체표현이나 흥미나 동기를 부여하는 매체를 통해 베토벤이 누구인가를 공부하고 인성이 악기화 되었다는 것을 앎으로써, 그 당시 사람의 목소리도 악기처럼 생각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클래식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드라마 동영상이나 영화의 한 장면을 감상함으로서 고전 클래식은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한 음악이 아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면서 클래식 음악의 관심도를 높여주기로 한다.

(1) 작품의 배경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은 작품번호125, d단조의 곡으로 1822~1824년 초에 작곡된 것이며, 베토벤의 9곡의 교향곡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베토벤의 후기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소나타 형식으로 된 몹시 빠른 제1악장, 스케르초의 제2악장, 느린 제3악장과 마지막 악장에서는 앞선 3악장의 회상(回想)이어 독창, 합창이 「환희의 송가」를 노래한다. 성악을 교향곡에 도입하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하게 표현하였으며 이 곡은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Friedrich Wilhalm Ⅲ, 1770~1840)에게 헌정되었으며, 표제에 '요한 프리드리히 폰 쉴러(Johann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의 「환희의 송가」에 의한 종말 합창이 있는 교향곡' 이라고 적혀있어 「합창 교향곡」이라고 불리어져 교향곡의 역사와 서양음악사에서의 금자탑이라 할 만한 작품이다.

dCollection @ chosun

1824년 5월 빈에서 베토벤이 스스로 지휘봉을 잡고 초연(初演)하였는데 당시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상태라 마지막 악장을 마쳤을 때 베토벤은 음악이 끝난 것도 몰랐다고 한다.

4악장 쉴러의 「환희의 송가」에 합창을 넣은 것은 베토벤이 사람의 목소리까지 넣고 모든 악기를 동원한 조화의 걸작이라 할 수 있으며, 베토벤 예술의 최고 절정을 이루는 고금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곡은 네 사람의 독창자와 대 합창을 사용한 마지막 악장으로 관현악의 서주로부터 시작되는 이 악장은 변주곡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것보다는 고뇌를 이겨내고 환희에 도달한 음악 내용이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제압한다.

(2) 가사의 내용

환희의 송가/ 쉴러

“환희여, 신들의 아름다운 광채여, 낙원의 처녀들이여, 우리 모두 감동에 취하고 빛이 가득한 신전으로 들어가자. 잔악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은 다시 결합시킨다. 그대의 다정한 날개가 깃들이는 곳,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위대한 하늘의 산물을 받은 자여, 진실된 우정을 얻은 자여, 여성의 따뜻한 사랑을 얻은 자여, 환희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그렇다. 비록 한 사람의 벗이라도 땅 위에 그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러나 그것조차 가지지 못한 자는 눈물 흘리며 발소리 죽여 떠나가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연의 가슴에서 환희를 마시고 모든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환희의 장미 핀 오솔길을 간다. 환희는 우리에게 입맞춤과 포도주, 죽음조차 빼앗아 갈 수 없는 친구를 주고 벌레조차도 쾌락은 있어 천사 케루부는 신 앞에 선다. 장대한 하늘의 궤도를 수많은 태양들이 즐겁게 날 듯이 형제여 그대들의 길을 달려라. 영웅이 승리의 길을 달리 듯, 서로 손을 마주 잡자. 억만의 사람들이여, 이 포옹을 전 세계에 퍼뜨리자. 형제여, 성좌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신이 계시는 곳이다. 엎드려 빌겠느냐, 억만의 사람들이여. 조물주를 믿겠느냐, 세계의 만민이여. 성좌의 저편에 신을 찾아라. 별들이 지는 곳에 신이 계신다.”

dCollection @ chosun

(3) 단원 학습 지도 계획

<표 4> 단원 학습 지도 계획 (2/3차시)

	지도학습내용	수업 자료	시간
1차시	· 제재곡 '땅위의 기쁨' 곡의 특징 이해 · 주제 가락 계명창 과 가사창 · 주제 가락 리코더 연주 · 신체표현&즉흥연주 - 리듬에 맞추어 셈여림 표현하기 · 제재곡에 관련된 동영상 감상	피아노 PPT CD 리코더	45분
2차시 (본시)	· 감상곡 '합창 교향곡' 4악장 감상 · 제1주제와 제2주제 익히기 (핸드벨) · 성악의 음역과 성부 파악 · 관현악의 음색과 배치 파악 · 합창 교향곡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감상	피아노 PPT CD 리코더 감상지 핸드벨	45분
3차시	· 감상곡 '합창 교향곡' 1~4악장 감상 · 음악신문 만들기 (창작) · 모둠별 창작 음악신문 발표 및 평가	피아노 PPT CD	45분

dCollection @ chosun

(4) 교수-학습 지도안

<표 5>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	기쁨의 계절 - 베토벤의「합창」교향곡
학습 목표	1.작곡가 베토벤의 생애와 작품을 말할 수 있다. 2.성악의 성부와 오케스트라의 배치를 말할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인사 및 출석 확인 ·제재곡을 리코더로 연주한다. ·제재곡'땅위의 기쁨'을 리듬치기와 함께 가사창하도록 한다. ·학습목표를 공동 도출한다.	·인사 ·제재곡을 리코더로 연주한다. ·제재곡'땅위의 기쁨'을 다함께 리듬치기와 가사창 한다. ·학습목표를 읽어본다.	·피아노 ·리코더 ·리듬치기(발구르기,무릎치기,책상치기)
전개 (12분)	·준비해온 베토벤의 생애를 발표시킨다. ·작곡가의 일대기에 대해 설명하고 작곡가로부터 작품의 배경을 추론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제재곡에 대한 동영상을 감상시킨다. ·감상한 느낌을 묻는다. ·4악장 주제선율을 제시한다.	·베토벤의 생애에 대해 간단히 발표한다. ·작곡가에 대해 알게 되면, 작곡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제재곡에 대해 이해한다. ·질문에 대답한다. ·선율선을 그려본다.	·PPT ·드라마 동영상 -감상지

dCollection @ chosun

전개 (18분)	·주제선율을 핸드벨을 사용하여 들려준다. ·학생에게 연주를 시켜본다. ·성악의 성부와 연주 형태에 대해 설명한다. -음악을 틀어준다. -쉴러의 시를 읽어주며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 ·관현악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배치를 설명한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악기의 사진과 소리를 들려준다. ·'카핑베토벤'을 감상한다	·주제선율을 잘 듣는다. ·한명이 나와 연주한다. ·목소리의 갈래와 연주형태를 안다. -음악을 듣고 구분한다. -시를 들으며 가사의 의미를 되새긴다. ·감상지를 보며 관현악 악기와 오케스트라 배치를 기억한다. ·사진과 소리를 잘 들어본다. ·영화의 장면을 통해 성악의 성부와 연주형태, 오케스트라의 악기와 배치를 안다.	·핸드벨 ·PPT ·CD ·PPT ·CD
정리 (10분)	·피아노 연주를 통해 베토벤의 다른 작품을 쳐 주고 감상시킨다. ·평가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소감을 발표시킨다. ·차시계획을 발표한다.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감상한다. ·평가지를 작성한다. ·소감을 발표한다. ·차시계획을 듣고 메모한다.	·피아노 ·평가지 작성

dCollection @ chosun

위의 <표 5>에 제시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곡가를 이해하여야 시대적 배경을 이해 할 수 있고,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면 가사의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으며, 제재곡에 대한 동영상과 함께 작곡가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추론과 추론의 검증 활동이 이루어진다.

우선 전개에서 각자 베토벤의 생애에 대해 준비해 오고 그것을 발표한 다음 교사로부터 작품의 배경과 작곡가의 생애를 듣는다. 그럼으로써 이 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을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 곡에 쓰인 쉴러의 시를 읽어주면 곡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곡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게 된다.

그 뒤 주제 선율을 핸드벨을 통해 들려줌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도입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연주 할 수 있도록 하여 경험-인지구조는 양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성악의 성부와 오케스트라의 악기 및 배치를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명제적 조작 도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악기의 사진들과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조절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감상하게 하여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 한다.

정리에서는 교사의 피아노 연주를 통하여 마치 학습자가 직접 연주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여 내재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Collection @ chosun

<표 6> 베토벤의「합창」교향곡 감상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은 모두 4악장으로 이루어 졌어요.

4악장에는 1주제와 2주제가 나오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선율선을 그리며 따라가 보아요. 그리고 교향곡에서 연주되는 오케스트라의 배치도 함께 알아봅시다.

<제1주제>

그 유명한 주제의 가락이 아무런 반주 없이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유니슨으로 조용히 연주되기 시작한다. 점점 악기들이 총 동원되어 <환희의 가락>을 힘차게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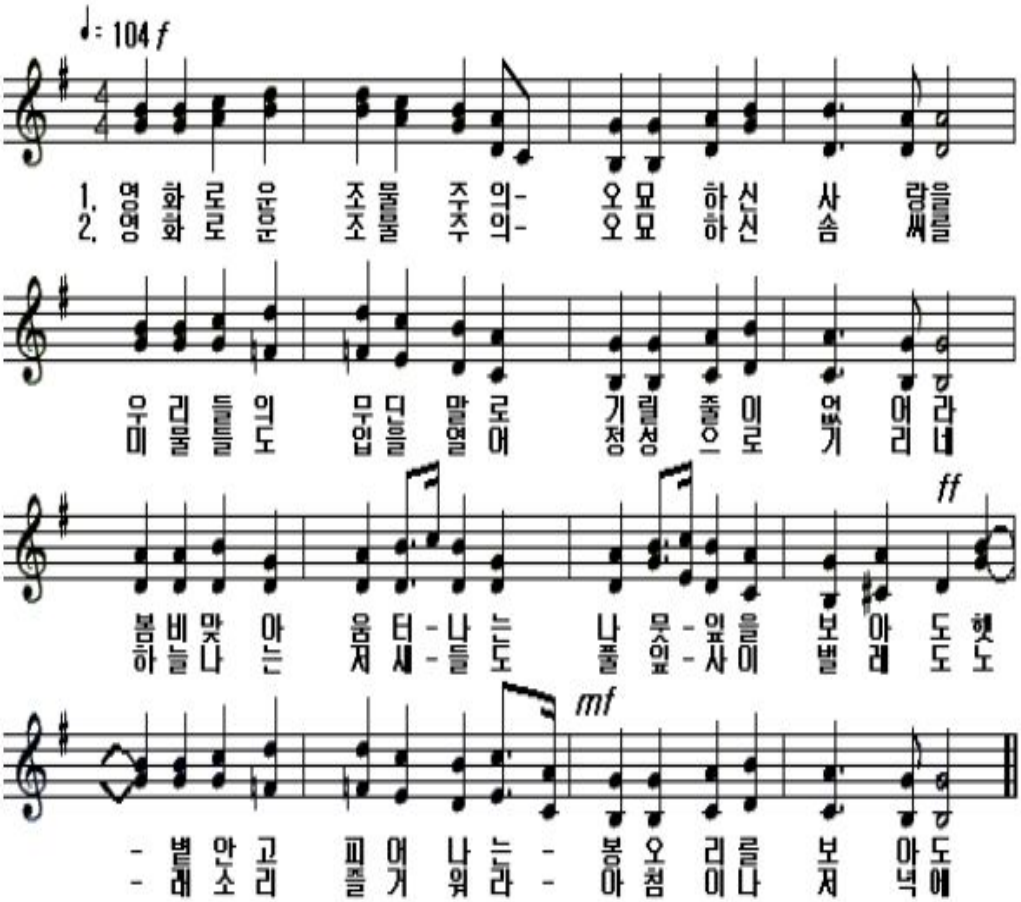
<제2주제>

곡은 갑자기 변하여 느리고 위엄있게 바뀌면서 트롬본과 첼로, 콘트라베이스의 이끌림으로 장대한 찬가의 곡조가 울려퍼진다.

Collection @ chosun

〔악보 1〕

땅위의 기쁨



Collection @ chosun

2.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체험중심 교수-학습 지도안

본 시 학습은 체험중심의 포괄적 음악학습으로 본 제재곡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작품 중의 하나로 각 곡마다 음악의 본질적 요소인 구성요소의 특성에 따라 각 동물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악기 편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며, 이 곡을 통해서 학생들의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의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 내용에서 볼 때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되는 감상곡이기 때문에 보다 충실한 감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동물의 사육제' 라는 본 감상곡을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동물의 이미지와 음악적인 흐름을 연관지으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간단한 그림악보를 통하여 새롭게 음악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1) 작품의 배경

프랑스의 작곡가 생상스는 1886년 2월 오스트리아의 크루딤에서 사육제를 지내면서 첼리스트인 친구 샤를 르부크가 주최하는 사육제의 음악회에서 청중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이 곡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여러 동물들의 특징을 재미있고도 풍자적으로 묘사한 14개의 독립된 음악으로 이루어진 실내 관현악용 모음곡이다.

(2) 표제음악

표제음악은 기악곡으로서 줄거리(프로그램)이나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이어서 듣는 사람들은 단지 '음들의 유희'만을 듣지 않고 음악의 의미를 같이 추적할 수 있다. 표제음악은 그 소재를 문학작품, 그림, 신화, 개인의 경험 등으로부터 가져온다. 그러나 표제음악의 작곡가들 중에는 줄거리나 표제가 음악의 '뜻' 이라기보다는 작곡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정한 내용을 반영하는 서곡들과 성격소곡들도 표제음악에 속한다. 성악곡, 발레음악, 영화음악은 일정한 줄거리를 가졌음에도 표제음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표제음악은 같은 기악곡 중 음악외적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절대음악의 반대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dCollection @ chosun

(3) 단원 학습 지도 계획

<표 7> 단원 학습 지도 계획(1/3차시)

	지도학습내용	수업 자료	시간
1차시 (본시)	· '동물의 사육제' 구성과 작곡자 이해 · 제1곡 그림악보로 감상 · 제2곡 타악기로 음악적 특징 표현 · 제5곡 등장 악기 파악 · 제6곡 개사하여 노래하기 · 피날레 : Fantasia 2000 애니메이션 감상	피아노 PPT 감상지 CD 그림악보 리코더	45분
2차시	· 제 4곡, 9곡, 13곡 감상 · 주제 가락 계명창 · 주제 가락 리코더 연주 · 모둠 나누기 (1~5모둠) · 모둠별 발표자료 토의 및 작성	피아노 PPT 가락악보 리코더 모둠활동지	45분
3차시	· 모둠별 가락악기 주제 선정 · 창작곡 악기로 연습 · 모둠별 창작곡 발표 및 평가	개인악기 피아노 녹음기 Tape 오선악보	45분

dCollection @ chosun

(4) 교수-학습 지도안

<표 8>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	다른 나라의 민요 - 동물의 사육제
학습목표	1.음악을 듣고 연상되는 동물을 말할 수 있다 2.음악을 듣고 빠르기, 악센트, 꾸밈음, 셈여림 등의 쓰임을 알고 표현 할 수 있다. 3.음악을 듣고 그림 악보를 통해 선율선을 그려볼 수 있다.

단 계	교수- 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 입 (5분)	· 인사 및 출석 확인 · 림스키 코르샤코프의 '왕벌의 비행을 들려준다. · 학습목표를 공동 도출한다.	· 인사 · 곡을 듣고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지 생각한다. · 학습목표를 읽어본다.	· CD · PPT
전 개 (30분) · 서주와 사자왕	· 생상스와 동물의 사육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 표제음악에 대해 설명한다. · 여러 동물 중 다른 하나의 특징에 대해 제시해 준다. · 음악을 들려준다. · 음악의 느낌과 어떤 동물이 연상되는지 질문한다.	· 배경지식을 습득한다. · 잘 듣고 추론해본다. · 나열된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 어떤 동물을 묘사하고 있는지 생각한다며 듣는다. · 당당하다, 무겁다, 웅장하다, 등으로 대답하고 연상되는 동	· PPT · CD

dCollection @ chosun

		물을 발표한다.	
	·그림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들려준다.	·그림악보를 보며 음악을 감상한다.	·그림 악보
	·어떤 악기가 사용되었는지 질문한다.(피아노,현악기)	·어떤 악기로 연주되었는지 맞추어 본다.	·CD
	·그림악보의A,B부분을 부분별로 감상한다.	·사자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그림 악보
	·B부분에서 셈여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질문한다.	·cresc.와 decrece.를 감지한다.	·CD
	·사자의 울음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신체나 목소리로 표현해 본다.	·신체 표현
·수탉과 암탉	·닭의 특징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닭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썬더 드럼 CD.PPT
	·음악을 들려준다.	·표현하면서 감상한다.	
	·어떤 악기들이 사용되었는지 질문한다.	·어떤악기로 연주되었는지 맞추어 본다.	
	·악보를 확인하며, 스타카토, 짧은 앞꾸밈음, 악센트, 트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후 타악기를 연주한다.	·악보를 보며 스타카토, 짧은 앞꾸밈음, 악센트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타악기의 소리를 듣는다.	·타악기
·코끼리	·앞부분만 잠깐 들려준다.	·감상한다.	·CD
	·어떤 동물이 상상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연상되는 동물을 발표한다.	
	·왈츠리듬은 피아노, 코끼리는 콘트라베이스가 표현함을 설명	·어떤 악기가 사용되었는지 이해한다.	

Collection @ chosun

·캥거루	한다. ·쉐이크를 연주하며 왈츠리듬에 노래를 불러보게 한다. ·캥거루의 특징을 생각하게 한다. ·어떤 악기가 사용되었는지 질문한다. ·친구 등 뒤에 노래의 선율을 가볍게 표현하게 한다. ·선율에 의성어나 의태어로 가사를 붙여 노래하게 한다. ·교사가 그린 그림악보를 보여주며 한 번 더 감상한다.	·왈츠 리듬을 무릎치기하며 노래 불러 본다. ·캥거루의 특징을 생각한다 ·어떤 악기로 연주되었는지 맞추어 본다. ·선율선을 친구 등 뒤에 표현해 본다. ·선율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다. ·빠르기 변화와 셈여림 변화를 느끼며 감상한다.	·쉐이크 ·CD ·피아노 ·그림 악보
정 리 (10분)	·끝 곡에 대해 설명한 후 동영상을 보여 준다. ·형성평가지를 나누어 주고 풀게 한다. ·정답을 확인 시켜 준다.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서주, 수탉과 암탉, 당나귀, 캥거루 등의 동물이 다 등장하는 곡임을 안다. ·형성평가지를 푼다. ·정답을 확인해 본다.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기억해 둔다.	Fantasia 2000동영상 ·형성 평가지, PPT

Collection @ chosun

위의 <표 8>에 제시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에 앞서 수업과 관련되는 표제음악 한 곡을 들려주어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그 다음 작곡가와 작품의 배경, 그 시대에 유행하였던 표제음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준 뒤 작품과 연관지어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그 배경과 특징들을 연관지어 추론해본다. 각 곡마다 음악을 먼저 들려주고 어떤 동물을 묘사하고 있는지 상상하고 감상함으로써 이미 설명하였던 표제음악을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곡을 감상할 수 있다.

각 곡에서는 곡의 느낌을 묻고 학습자가 생각하는 느낌을 자유자제로 이야기 할 수 있으며, 교사는 그 답을 듣고 학생들을 이해한다. 감상지에 만화의 장면들을 넣어 가락악보와 함께 이해하여 쉽게 감상할 수 있다. 또 구체적인 학습 자료를 이용한 그림악보를 보면서 음악의 흐름을 이해한다. 그리고 각 곡의 특징에 따라 곡에 사용되었던 악기 대신 다른 악기(썬더드럼, 쉐이크 등)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도입하고 흥미를 유발시킨다.

단순히 악곡을 동물에 비유하여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곡의 특징에 따라 연상되는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신체표현을 하며, 선율선을 그려보고 곡에 가사를 붙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과 스스로의 음악활동을 통해 지적 평형 상태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된다.

Collection @ chosun

<표 9>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감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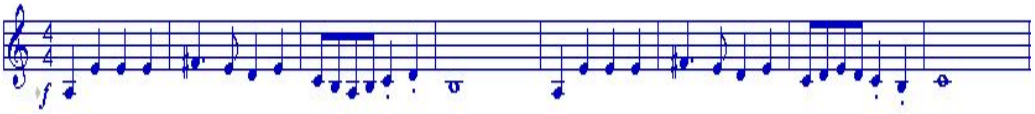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는 모두 14곡으로 이루어 졌어요.

각 곡마다 동물들이 묘사되는데 오늘은 그 중 제 1곡, 2곡, 5곡, 6곡, 마지 막 끝곡인 피날레 14곡을 감상하겠어요. 어떤 동물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네요. 자, 우리 함께 사육제에 참여해 봅시다.

제1곡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피아노의 트레몰로로 서주가 시작되면 곧이어 사자왕의 행진 주제가 현악기로 들려옵니다.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나요?

늠름한 사자의 모습을 위풍당당하게 나타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사자왕의 행진 주제는 다시 반복될 때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됩니다.



제2곡 <수탉과 암탉>

여러분들은 어수선하고 바쁜 수탉과 암탉을 만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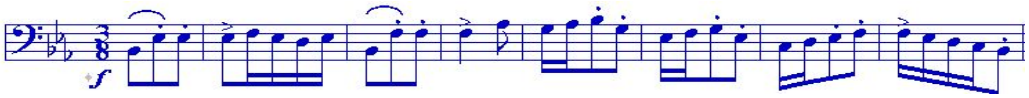
피아노와 현악기가 수탉을, 클라리넷이 암탉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다음악보는 암탉의 주제인데, '꼬꼬꼬꼬꼬꼬꼬꼭'하고 들리진 않나요? 잘들어보세요.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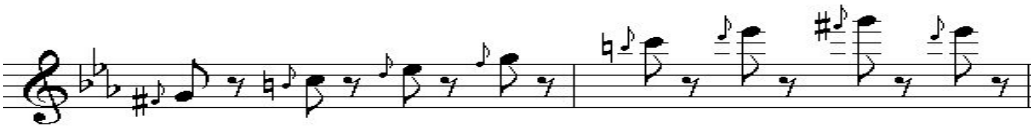
제5곡 <코끼리>

커다란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더블베이스의 무거운 음이 들립니다. 그러나 육중한 몸의 코끼리는 경쾌하게 왈츠를 추고 있네요. 발레 슈즈를 신고 물방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춤을 추는 코끼리를 상상해 봅니다.



제6곡 <캥거루>

2대의 피아노로 캥거루의 껑충껑충 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네요. 잘 들어보면 뛰는 음들이 같은 빠르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빨라졌다가 느려지기도 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캥거루가 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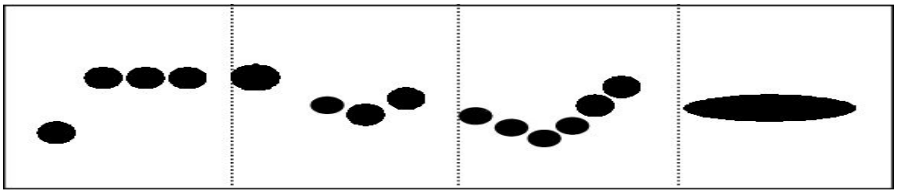
제14곡 <피날레>

모든 동물들이 나와서 한바탕 소동을 크게 벌이는 모습이군요! 어떤 동물들이 등장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세요. 이제는 동물의 사육제가 막을 내리는 시간!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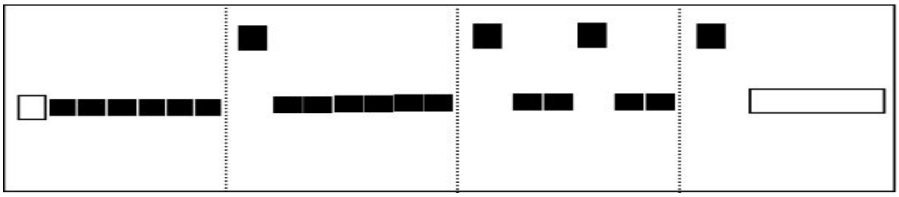
dCollection @ chosun

〔그림 1〕 **그림 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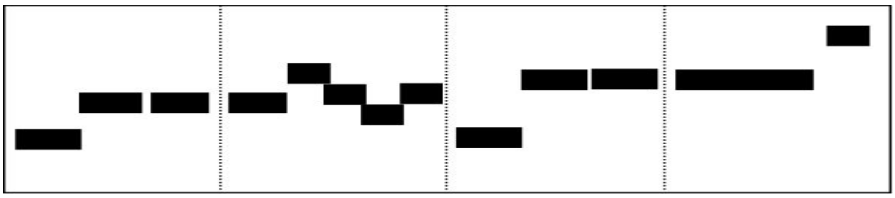
<서곡과 사자왕의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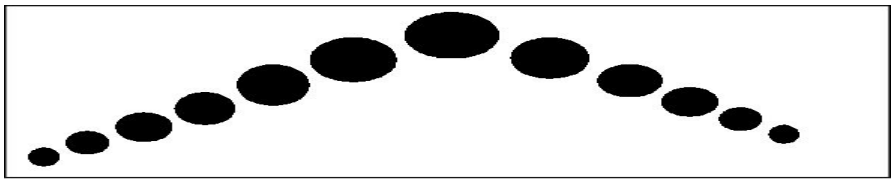
<수탉과 암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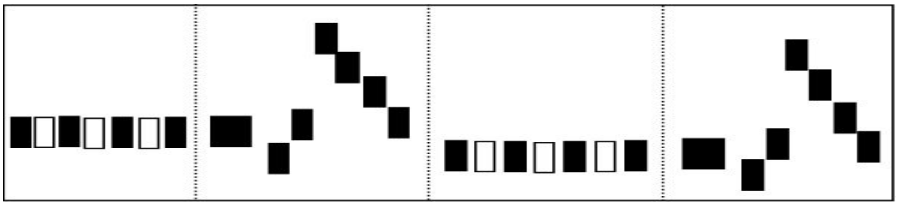
<코끼리>



<캥거루>



<피날레>



Collection @ chosun

3. 바레즈의 「이온화」: 창작중심 교수-학습지도안

본 시 학습은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학습으로 본 제재곡은 13인의 주자가 40종의 타악기를 연주하는 타악기를 위한 리듬적 대위법을 시도한 실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멜로디와 화음에 대한 보조적인 악기라는 타악기와 종(Bell)의 인식을 대담하게 해방시킨 이 작품은 순수한 울려퍼짐(음향)과 리듬에 있어 상상력이 풍부한 연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학생들에게 때려서 소리가 나는 물건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즉흥연주를 함으로서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느끼는 모든 소리들을 가지고 직접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실험 정신을 갖는 주제라 할 수 있다. 값 비싼 악기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리컵이나 빨래판, 열쇠고리, 페트병 등을 가지고 모은 소리를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배열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삽입하여 새로운 창작중심의 수업을 이루도록 한다.

(1) 작품의 배경

1915년 미국으로 건너간 바레즈에게 뉴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새로운 발견이고 놀라움이었다. 그는 뉴욕에서 생활하며 접하는 자동차 소리나 공장의 쇳소리와 같은 기계적이며 시끄럽고 거친 불규칙한 소리들 즉 소음들을 작품에 반영하였고, 화재경보로 인한 사이렌소리에 착안하여 사이렌을 하나의 악기로 간주하여 작품에 사용하였다. 그는 1931년 타악기와 사이렌 음향만을 사용하여 「이온화」를 작곡하였다. 이 작품은 서양음악사에서 최초의 순수 타악기 음악으로 평가받는다.

(2) 단원 학습 지도 계획

<표 10> 단원 학습 지도 계획 (1/1차시)

dCollection @ chosun

	지도학습내용	수업자료	시간
1차시 (본시)	·'이온화' 구성과 작곡자 설명 · 타악기의 음악적 특징 표현 · 소리를 모아 배열하기 · 모둠별 나누기(1~3모둠) · 가락악기와 타악기를 통해 음악 만들기(모둠별) · 모둠별 창작음악 발표 및 평가 · 난타 공연이나 스텀프 공연 감상	PPT CD 타악기 평가지 비디오 모둠활동지	45분

(3) 교수-학습 지도안

<표 11>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	작곡가 - 바레즈의 「이온화」
학습목표	1.작곡가 바레즈의 현대 음악적 특징을 알 수 있다. 2.음악을 듣고 타악기의 성질을 말 할 수 있다. 3.우리 주변에서 쉽게 소리 낼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 음악을 만들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 입 (5분)	· 인사 및 출석 확인 · 여러 가지 타악기를 통해 다양한 소리를 들려준다. · 학습목표를 공동 도출한다.	· 인사 · 악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잘 들어본다. · 학습목표를 읽어본다.	· 타악기 · PPT

Collection @ chosun

전 개 (32분)	· 제재곡에 관련된 연주를 감상시킨다. (스텀프) · 바레즈의 생애와 악곡을 간단히 설명한다. · '이온화' 음악을 들려준다. · 곡의 분위기를 묻는다. · 어떤 악기가 들리는지 물어본다. · 모둠별로 악기를 준비시킨 뒤 소리를 배열한다. · 연주법 기호를 만들어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모둠별로 발표시킨다.	· 연주를 주의깊게 감상한다. · 바레즈의 생애와 악곡을 정리한다. · '이온화' 음악을 감상한다. · 곡의 분위기를 말한다. · 어떤 악기소리가 들리는지 답한다. · 연주할 악기를 준비한다. · 연주법 기호를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본다. · 모둠별로 발표 한다.	· 비디오 · PPT · CD · 타악기 · 활동지
정 리 (8분)	· 모둠별로 평가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 공연인 난타공연을 감상시킨다. · 소감을 발표시킨다. · 차시계획을 발표한다.	· 모둠별로 만든 음악을 듣고 평가지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 타악기의 특성을 잘 생각하여 감상한다. · 소감을 발표한다. · 차시계획을 듣고 메모한다.	· 평가지 작성 http://nanta.i-pmc.co.kr/

위의 <표 11>에 제시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작활동으로 이루어진 수업으로 도입에서 교사가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물건(타악기)을 통해 곡을 창작하여 들려준다. 그리고 작곡가의 생애와 작품의 배경을 설명해 준 뒤 곡을 들려주어 곡의 느낌을 추론하게 한다. 곡의 느낌을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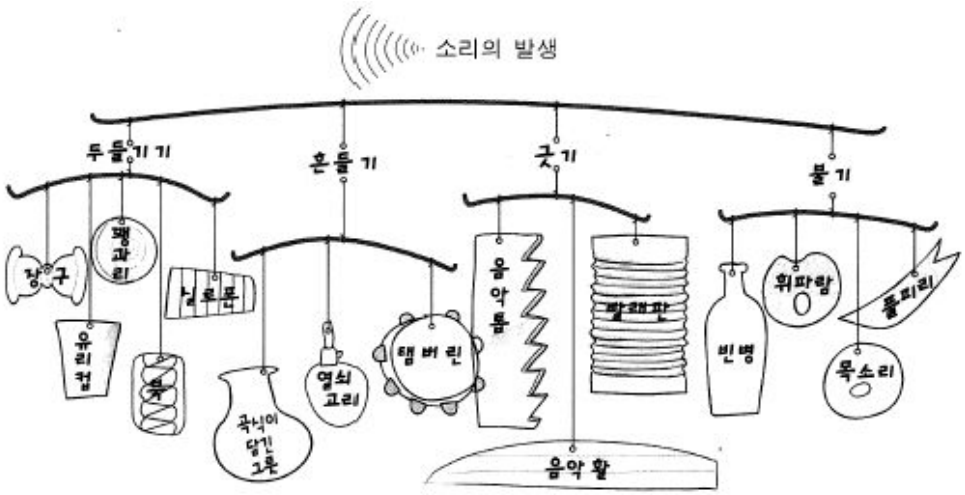
물을 때에 작품과 연주의 질을 비평하며 감상하게 된다. 어떤 악기의 소리가 들리는지 물어보고 대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듣는 감각의 예민성을 향상시키는 지도를 한다. 창작활동을 할 때에 연주법 기호를 만들어 모둠별로 학습을 시킴으로 자율적 활동을 통해 발달 단계에 따른 인지구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확장하게 된다. 또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악을 표현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음악을 함께 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능동적인 활동에 의해 지적 평형상태를 얻게 된다.

정리에서는 학습한 것을 토대로 동영상을 통해 복습한다. 그리고 타악기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우리 주변에서 음악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표 12> 바레즈의 「이온화」 모둠 활동지

♣ 바레즈의 「이온화」는 모두 37개의 타악기(피아노 포함)를 13명이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매우 독창적인 방법으로 음의 소재나 형식을 짜 맞추어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도 주변에서 쉽게 소리 낼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 음악을 만들어 봅시다!



모은 소리를 들어 보고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배열해 보아요!
이 때 주의할 점은 연주법의 기호를 만들어 표 위에 나타내면 음악의 진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만들어 보세요.

소리 배열하기

진행(초) / 소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탬버린	•	•			⁓⁓	⁓⁓		∿∿		∿∿			• •	• •	• •	• •	
빈병 불기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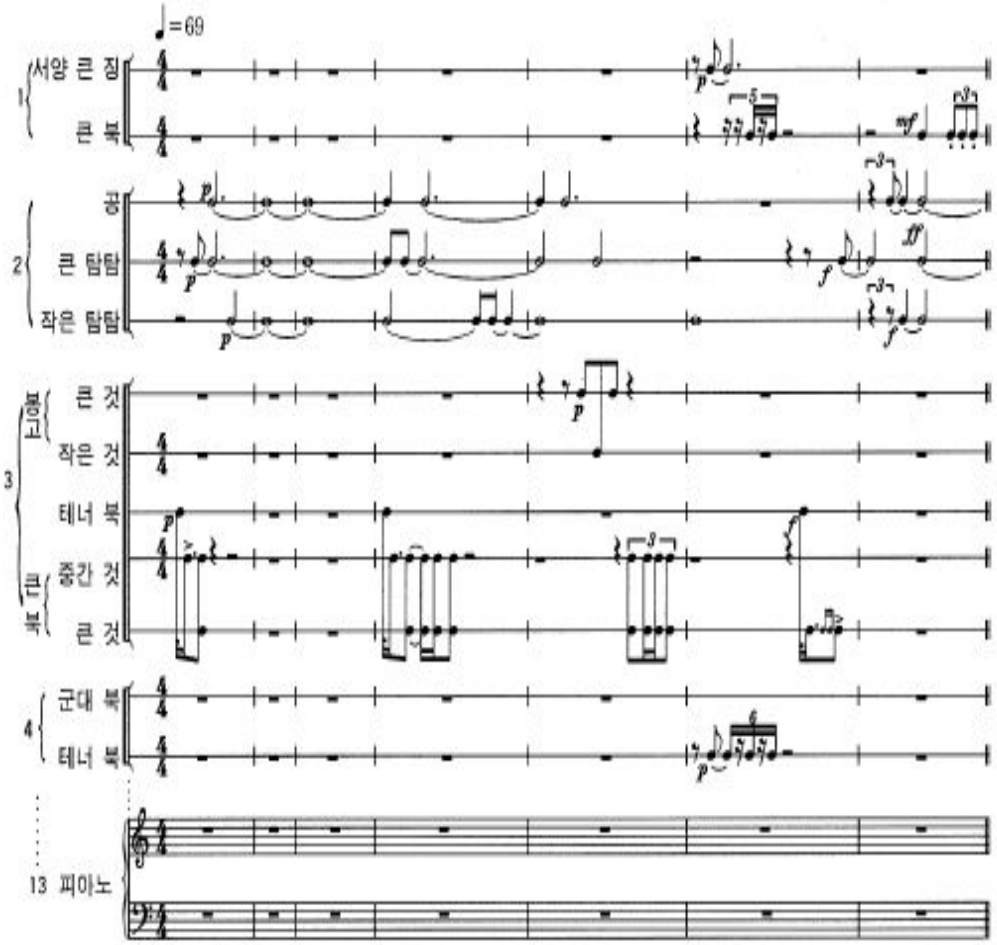
※ 연주법 기호 : [보기] • 두들기기, ⁓⁓ 긋기, ∿∿ 흔들기, ∿ 불기

Collection @ chosun

〔악보 2〕

이 온 화

바레즈 작곡



※ 모두 37개의 타악기(피아노 포함)를 13명이 연주한다.

Collection @ chosun

Ⅴ. 결론 및 제언

어떤 종류의 학습이든 학습자의 심리적인 기제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피아제의 인지 심리학에 입각한 교육으로서 기존의 음악 감상수업과는 다르게 인지심리학적 시각에서 음악 감상 수업의 기초적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정서를 자극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학생 개개인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넓게는 남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음악과 세계 음악문화를 공유하여 일반 교육으로서 기능적인 음악이 아닌 예술을 가르치고 학습하여 함께 누리는 교과가 되리라 기대 해 본다.

또한 학습자가 음악을 듣고 느낀 점을 이해, 체험, 창작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감상활동에 집중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의 정서적 폭을 넓힘으로써 예술에 대한 감각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감상지도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첫째, 효과적인 음악수업에 있어서의 교사의 역량은 중요하다. 교수·학습 방법의 심리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는 심리학에 대한 이론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 여러 환경적 요인인 음악자료 확충이 필요하다. 여러 형식의 다양하고 수준 있는 감상곡이 좋은 음질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제공 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감상곡의 선정, 여러 학습 자료의 계발과 활용으로 감상교육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음악 감상 활동에서 쉽게 접근해 가는 감상지도법의 활용은 음악 세계에 대한 안목을 더욱 더 넓혀 주는데 기여한다. 이는 음악이 단순히 듣는 것, 음악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이용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인지적 능력을 파악하여 감상한다면 학습자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음악을 느끼고 다양한 음악을 자유롭게 향유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Collection @ chosun

참 고 문 헌

강태훈 외(1998).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이당.

교과부(2008).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저자.

기청(2006). 음악교육의 실제와 이론. 서울: 세광문화.

박유리(2003). 시청각매체를 활용한 중학교 감상영역의 수업방법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백병동(1995). 개정 대학음악이론.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서한범 외(2002). 중학교 음악1. 서울 : 도서출판 태성.

세광음악출판사 편집부(1992). 음악대사전 .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송명자(1999).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신명희 외(1998).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안범희 외(1998). 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과학사.

이성삼・이홍렬(1985). 음악감상론. 서울 : 정음사.

이정모 외(1999). 인지심리학. 서울 : 학지사.

이홍수(1994a). 음악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음악여행.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_____(1994b).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_____(1999).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이홍수 외(2001). 중학교 음악1. 서울 : (주) 두산.

정세모(1987). 음악과 학습지도. 서울 : 창지사.

조현주(2004). 피아제(J.Piaget)의 인지발달론에 따른 가창지도 방안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Wordsworth, B. J.(1995). 피아제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성옥련・김수정・이지연 역.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